지역 메아리

정읍농기센터, 대설 대비 농작물·시설물 관리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는 다가오는 대설과 한파를 대비하고 내년도 풍년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농가에게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의 변동성이 크고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다고 1개월 예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라 올 여름에 폭염이 있었고, 겨울에도 국지적이고 갑작스런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대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당부했다.

농가에서는 폭설에 대비하여 시설하우스의 차광망을 걷어주고 보조 지주대를 설치하며, 연동하우스 곡부에 쌓인 눈을 수시로 제거해야한다. 또한 난방기를 가동하여 쌓인 눈을 녹이고, 인삼재배시설이나 과수 방조망 시설은 걷어주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대설피해를 입었을 때는 시설하우스 주위에 쌓인 눈을 신속히 제거하고, 파손된 골조나 피복 비닐을 긴급 보수하여 시설 내 작물이 동해나 저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눈이 녹아서 찬물이 하우스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예결위원회 새해예산 6016억 의결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근)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2019년도 예산안 6016억 67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5678억, 특별회계 337억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지난 13일 제296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10개과 27개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에서 40억 8,186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다.

이번에 삭감된 대상 사업들은 대체로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과 시기적으로 시급하지 않는 사업을 위주로 하여 삭감했다.

삭감된 사업들의 내역을 살펴보면 ▲부안군 마을지명 문화지원 연구용역비 ▲항온 항습기 유지보수 ▲바다낚시 대회지원 ▲소형농기계 수리비 지원 ▲공무원멘토링 우수참여자 국외연수 지원등 27개소 사업에 대해 삭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예산 6000억원 시대 개막

부안군, 올해 예산 5000억원 달성 1년 만에 1000억원 증액 큰 성과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사상 처음으로 예산 6000억원 시대를 개막했다. 부안군은 2019년도 예산이 2018년 본예산규모 대비 408억원(7.28%) 늘어난 6016억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일반회계 5678억원(94.38%), 특별회계 338억원(5.62%)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안군은 2018년 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연지 1년 만에 예산 6000억원 시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416억원이 증가한 2616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73억원이 증가한 2302억원이다.

이러한 성과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7기 시작부터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북도의원 시절 맺은 인맥 관리와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현안사업 등을 꾸준히 건의하는 발품행정이 주효했다.

2019년도 예산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을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1421억원(23.63%)과 사각지대 없고 소외계층 없는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999억원(16.61%)을 편성하였으며 2023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에 345억원(5.74%)를 편성했다.

2019년도 주요 사업은 어촌뉴딜 개발사업 139억원, 부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24억원, 부안읍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74억원, 공공실버주택 건립 45억원,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2억원, 치도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4억원 등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예산 6000억원 시대를 개막한 2019년에는 소득 UP, 행복 UP, 사람 UP 등 부안 3-UP 행정 실현 비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과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사각지대 없는 복지 및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 세계잼버리를 통해 관광객이 몰려드는 도시 건설과 마을 신활력사업 및 공동체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 것"이라며 "부안군 중장기 발전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할 2023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서남권의 중심도시 정읍,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로 미래를 연다

정읍시, '올해를 빛낸 브랜드 대상' 소비자 선정 도시브랜드 부문 수상 쾌거

전북 서남권의 중심도시 정읍시가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탄탄한 인문학적 토대와 관광자원, 그리고 첨단과학연구시설과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웃고,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정읍시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소비자 선정 '2018 올해를 빛낸 브랜드대상' 도시부문에서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있었다.

시상식에서 유진섭 시장은 "애민(愛民)과 경민(敬民)의 자세로 시민, 곧 사람이 중심이자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더욱 발전하며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계층이 아닌 지역민 모두가 지향하는 공동체 이익과 부합하고 모든 개인이 행복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정읍이야말로 시민 모두가 간절하게 바라는 정읍의 미래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장은 특히 "'사람 중심의 정읍'은 사실 역사적 뿌리가 깊다"며 "정읍에서 불씨를 피워 올린 동학농민혁명은 자유와 평등, 자주정신,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이 되는 '사람중심 사회'에 대한 민중의 거대한 함성이요 외침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민선 7기 정읍시장에 당선, 역동적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는 유시장은 시정방침을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으로 정하고 5대 세부방침(▲품격 있는 안전행복도시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스마트한 농·생명도시)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의회 3선(제 5, 6, 7대) 의원, 제7대 정읍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유 시장은 "의정 경험이 시장 수행과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의정과 시정 마인드 공유가 민의(民意)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이는 곧 사람 중심의 시정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기반으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도 주력해 주목할만한 성과도 거뒀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첨단연구기반 시설 확충과 기업유치 등의 첨단산업 육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정읍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다시 찾고 싶은 감동 관광도시 정읍의 밑그림도 그렸다.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황토현 전승일(5월 11일) 선정, 정읍구절초꽃축제 등 대표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정읍에 뿌리를 둔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를 테마로 한 정촌가요특구사업 마무리 등이 대표사업들이다.

유시장은 도·농복합도시인 지역특성에 기반해 농촌 살리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첨단연구시설에 기반한 축산악취 문제 해소와 농민수당 개념인 공익형 직불제사업을 비롯 스마트팜 조성 등 혁신 선도농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다문화가정 확대, 치매안심센터 건립 추진과 청소년 활동 지원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 등 복지와 교육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 최우선 행정'을 펼쳤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부전동과 금붕동 재해위험 지구 정비를 비롯 여성화장실 긴급 호출벨 설치 등 안전망 확충뿐만 아니라 작은말고개와 죽림터널 도로 개통 등을 통해 도시 균형 발전의 토대도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군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홍보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알리기 본격 돌입

각계 전문가 구성 홍보자문단 위촉… 홍보방향 설정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홍보자문단을 꾸리고, 전략적인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알리기에 나선다.

고창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군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홍보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홍보자문단은 고창군 정토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향후 고창군의 홍보방향 설정과 군정홍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군정소식지 발간을 비롯해 군정 홍보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해 군민이 바로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군정홍보 방안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이날 구성된 홍보자문단은 위촉식 후 첫 심의안건으로 '고창의 자랑거리 100선 선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토진 위원장은 "민선7기 군정 주요시책과 변화·발전하는 고창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려,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위상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한 고창의 자랑거리 100선 선정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원 의정비 2.6% 인상안 최종 결정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관)는 지난 13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을 비롯한 제8대 고창군의회 의정비를 심의하고 이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월정수당으로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2020년~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여비 지급을 의결했다.

앞서 고창군의회에선 장기간 이어지는 지역경제 침체와 재정자립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장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201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수준의 의정비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에 위원회에선 의회의 의견과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심의를 의결했다.

최종 심의결과,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을 인상해 당초 월 171만원(연 2052만원)에서 월 4만4000원(연 53만원)이 오른 월 175만4000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2022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증액되고, 2019~2022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을 유지해 월 110만원(연 1320만원)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실비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내년에는 월 285만4000원(연 34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